

#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 양상과 언어 전환\*

박경래  
(세명대학교)

## Abstract

Park, Kyeong-rae. 2017. "The Study on the Change of Linguistic Identity and Code-switching of Korean-Chinese i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4). 1~2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 in linguistic identity and language use of Korean Chinese. This study also aims to demonstrate that Korean Chinese are preserving both their identity as Korean and the language.

All data were collected by field study which revealed Korean Chinese had high ability of Korean language use. However,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the generations were shown. Teenagers showed less fluency of Korean compared to older generation. And Korean Chinese from highly populated with Korean Chinese region spoke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and showed more fluency while those from other region in China mostly spoke Chinese as their first language and spoke Korean less fluently. It is also noticeable that code-switching and code-mixing are prominent in the language use of Korean Chinese, especially among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showed code switching more markedly suggesting their language transition to Chinese. Therefore, further study on detailed examples of code-switching and code-mixing is required.

**Keywords:** linguistic identity, linguistic attitudes, code-mixing, code-switching, language transition

---

\* 이 논문은 2014~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4740).

이 글은 사회언어학회와 담화인지학회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동 주최한 2017년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1. 서론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sup>1)</sup> 사회의 변화로 인한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전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표다.<sup>2)</sup> 중국의 개혁개방<sup>3)</sup> 정책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과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가속화시켜 중국 사회는 물론이고 조선족 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급속히 해체되거나 재편되는 변화를 초래하였다.<sup>4)</sup> 조선족 사회의 급속한 해체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거주지의 재편은 이들의 언어사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5)</sup>

중국 정부가 실시한 1990년의 제4차 인구 조사와 2010년에 실시한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의 인구 분포 변화를 알 수 있다.

- 
- 1) 이 글에서의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인 한민족(韓民族)을 뜻하며 '재중 동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다.
  - 2) 이 글에서 '이중언어 사용'은 언어 사용 맥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이중언어 사용은 언어사용 맥락에서 언어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언어 선택의 결과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게 되면 언어 전환으로 보고자 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조선족 사회는 언어 선택으로 인한 이중언어 사용과 언어 전환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3) 중국의 개혁 개방은 1978년 12월 18일 중국 공산당 11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어 실행된 정책이다. 경제체제 개혁은 농촌, 도시부문, 연안 개혁의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개방은 3단계인 1987년 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 개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부터를 말한다.
  - 4)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들도 1990년을 전후하여 농촌을 떠나 상하이, 다롄, 선전, 톈진, 칭다오 등 연해도시로 이주하여 신흥 집거지를 형성하였고, 한중 수교(1992년)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현재 체류 외국인인 1,757,261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878,591명(한국계 616,109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 146,811명, 베트남 133,567명, 타이 85,769명, 필리핀 52,993명, 우즈베키스탄 46,095명 순이었다. 체류 외국인 가운데 35.1%가 조선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의 조선족 자치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집필소조(1984)를 참조할 수 있고 개혁개방 시기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에 대하여는 한상복·권태환(1993),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에 관하여는 윤인진(2002, 2003,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 5)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족 사회가 안정되어 있었고 자연히 언어와 문화도 잘 보존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는 2010년 10월 현재 총 183만여 명으로 1990년에 비해 약 9만여 명 가량 줄었다. 특히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의 인구가 약 26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 3성에 거주하던 17만여 명의 조선족들이 중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중국 조선족의 인구 분포 변화<sup>6)</sup>

| 지역            | 1982      |       | 1990      |       | 2000      |       | 2010      |       | 연평균 인구성장률         |                   |                   |
|---------------|-----------|-------|-----------|-------|-----------|-------|-----------|-------|-------------------|-------------------|-------------------|
|               | 인구수       | 비율    | 인구수       | 비율    | 인구수       | 비율    | 인구수       | 비율    | 1982<br>~<br>1990 | 1990<br>~<br>2000 | 2000<br>~<br>2010 |
| 합계            | 1,765,240 | 100   | 1,923,361 | 100   | 1,923,842 | 100   | 1,830,929 | 100   | 1.07              | 0.00              | -0.50             |
| 동북 3성         | 1,733,967 | 98.23 | 1,868,377 | 97.14 | 1,775,198 | 92.27 | 1,607,510 | 87.80 | 0.93              | -0.50             | -0.99             |
| 지린<br>(吉林)    | 1,104,071 | 62.55 | 1,183,567 | 61.54 | 1,145,688 | 59.55 | 1,040,167 | 56.81 | 0.87              | -0.31             | -0.97             |
| 헤이룽장<br>(黑龍江) | 431,644   | 24.45 | 454,091   | 23.61 | 388,458   | 20.19 | 327,806   | 17.90 | 0.63              | -1.51             | -1.68             |
| 랴오닝<br>(遼寧)   | 198,252   | 11.23 | 230,719   | 12    | 241,052   | 12.53 | 239,537   | 13.08 | 1.9               | 0.42              | -0.06             |
| 기타 지역         | 31,273    | 1.77  | 54,984    | 2.86  | 148,644   | 7.73  | 223,419   | 12.20 | 7.05              | 9.62              | 4.16              |

위의 <표 1>은 1982년에는 조선족의 98.23%가 동북 3성에 거주했었는데 2000년에는 92.27%, 2010년에는 87.80%로 나타나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동북 3성 외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비율은 1982년에 1.77%이던 것이 2000년에는 7.73%, 2010년에는 12.20%로 급격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북 3성에 거주하던 조선족들의 상당수가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집거지를 떠나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표 1>은 권태환·박광성(2004)의 연지시(延吉市) 통계국(2000)의 '전국 인구 보편 조사' 결과와 박광성(2012)의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표 1>의 통계 자료는 모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거주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2017년 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 2,013,779명 가운데 50.8%인 1,022,637명이 중국인이고 이 가운데 630,110 명인 61.6%가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sup>7)</sup>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와 재편은 언어사용에서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표 2> 체류외국인 및 연도별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 거주 현황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년 1월  |
|-------------------|-----------|-----------|-----------|-----------|-----------|
| 총 계               | 1,576,034 | 1,797,618 | 1,899,519 | 2,049,441 | 2,013,779 |
| 중 국 <sup>8)</sup> | 778,113   | 898,654   | 955,871   | 1,016,607 | 1,022,637 |
| 한 국 계             | 497,989   | 590,856   | 626,655   | 627,004   | 630,110   |

조선족의 이동은 조선족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와 재편을 가져왔다. 조선족의 이합과 집산은 수많은 조선족 마을이 한족(漢族)이 주가 되는 마을로 바뀌었고 이는 조선족 마을에 있던 조선족 소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족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증가하게 되었다(박경래 2002a, 2002b 참조). 이러한 상황은 조선족 사회나 조선족

7) 2017년 1월 31일 기준 출입국 통계 월보([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에 의하면 한국 체류 조선족 수가 2013년에는 498,000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630,000여 명으로 132,000여 명 정도 늘었다. 조선족 인구의 약 34%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 체류외국인 연도 및 국적별 현황(2017년 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명)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월         |
|-------|-----------|-----------|-----------|-----------|------------------|
| 총 계   | 1,576,034 | 1,797,618 | 1,899,519 | 2,049,441 | 2,013,779(100%)  |
| 중 국   | 778,113   | 898,654   | 955,871   | 1,016,607 | 1,022,637(50.8%) |
| 한 국 계 | 497,989   | 590,856   | 626,655   | 627,004   | 630,110(31.3%)   |
| 베 트 남 | 120,069   | 129,973   | 136,758   | 149,384   | 148,950(7.4%)    |
| 미 국   | 134,711   | 136,663   | 138,660   | 140,222   | 136,887(6.8%)    |
| 중 략   |           |           |           | 중 략       |                  |
| 기 타   | 61,076    | 71,555    | 78,906    | 92,942    | 90,249(26.0%)    |

8) 한국계(조선족) 포함.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말 언어전수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조선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선어의 쇠퇴의 가장 큰 요인은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언어 정체성의 변화는 언어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 정체성의 변화가 실제 언어사용 맥락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다. 언어 정체성의 변화는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다.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서는 언어선택의 결과가 언어 전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언어 선택과 언어 전환은 언어 정체성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언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언어 태도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sup>9)</sup>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의 변화와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sup>10)</sup> 조사 내용은 언어 태도, 언어 능력, 언어사용과 관련된 문항 52개와 어휘 차용, 언어 뒤섞기, 언어 선택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sup>11)</sup>

- 
- 9) 이중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태도와 언어 전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는 이익섭(1984) 9장과 강현석 외(2015)의 8장과 9장, 조선족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는 이장송·신경식(2004),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정체성과 언어 전환에 대하여는 한성우(2010, 2014)를 참고할 수 있다.
- 10) 1차 조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였는데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3명의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제2차 조사는 지린성이 옌벤 조선족 자치주와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조사 후 창춘 지역을 중심으로 보충 조사를 하였다. 제3차 조사는 본 연구를 위하여 2014년 8월 옌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제4차 조사는 2014년 10월 지린성의 창춘과 귀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5차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제6차 조사는 2015년 7월~8월에 랴오닝성 선양, 헤이룽장성 하얼빈과 상즈, 지린성 창춘과 옌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중 수교 직후 지린성과 랴오닝성 조선족의 언어생활에 대하여는 왕한석(1996, 1997), 박경래(2005) 등에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로 인한 조선족의 인구 이동과 관련한 언어태도와 사용에 대하여는 오성애(2010, 2011), 옌벤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하여는 양홍(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11) 조사 내용은 박경래 외(2012)를 위한 설문 외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언어 사용과 학교와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언어 사용이 추가되었다.

|       |      |   |
|-------|------|---|
| 1차 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4월~7월   |
|       | 조사지역 | 중국 지린성 전역   |
|       | 조사대상 | 청소년, 중년, 노년층 184명                                     |
| 2차 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7월  |
|       | 조사지역 | 중국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
|       | 조사대상 | 청년, 중년, 노년층 421명                                      |
| 3차 조사 | 조사기간 | 2014년 8월  |
|       | 조사지역 | 중국 지린성 옌벤 지역  |
|       | 조사대상 | 청소년, 장년층 이상 30명                                       |
| 4차 조사 | 조사기간 | 2014년 10월   |
|       | 조사지역 | 중국 지린성 창춘시, 귀태시                                       |
|       | 조사대상 | 중학생 20명, 중년층, 노년층 5명                                  |
| 5차 조사 | 조사기간 | 2014년 11월~2015년 1월                                    |
|       | 조사지역 | 중국 랴오닝성 선양, 헤이룽장성 하얼빈 및 상즈시, 지린성 창춘시, 옌지시, 룡징시, 투먼시 등 |
|       | 조사대상 | 중학생, 중년층 및 노년층 719명                                   |
| 6차 조사 | 조사기간 | 2015년 7월~8월   |
|       | 조사지역 | 중국 랴오닝성 심양, 헤이룽장성 하얼빈 및 상즈시, 지린성 창춘시, 옌지시, 룡징시, 투먼시 등 |
|       | 조사대상 | 중학생, 중년층 및 노년층 754명                                   |
| 합 계   |      | 총 2,133명 녹음 파일 206개                                   |

조사 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sup>12)</sup> 언어 태도나 언어 정체성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변인은 연령과 지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연령과 지역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화자에 대해 가지는 견해’를 언어 태도라

12) 설문 결과는 언어 태도와 이중언어 사용 및 언어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자료 2,153부 가운데 미완성 자료나 자료처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0부를 제외한 2,133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외에 녹음 조사를 병행했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내용도 다양하여 조사 분량 전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특히 녹음 자료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고 하는데 이 언어 태도에 의해 언어사용이 결정된다. 어떤 화자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화자가 어떤 언어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언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모국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모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이중언어 사회에서 모국어를 계속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모국어 사용을 약화시켜 언어전환 혹은 언어사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는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사회언어학회 2012: 153).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과 언어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요소는 출신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출신 학교(조선족 학교인지와 한족 학교인지)는 언어 선택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언어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sup>13)</sup> 중국 조선족의 출신학교 비율을 학교 급별로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조선족의 학교급별 출신학교 빈도수(비율 %)

| 구 분  | 학교 유형       |         |         |        | 전체           |
|------|-------------|---------|---------|--------|--------------|
|      | 조선족학교       | 한족학교    | 둘 다     | 기타     |              |
| 소학교  | 1,624(95.1) | 65(3.8) | 14(0.8) | 4(0.3) | 1,707(100.0) |
| 초등학교 | 1,554(94.4) | 90(5.5) | 1(0.1)  | 1(0.1) | 1,646(100.0) |
| 고등학교 | 837(89.9)   | 89(9.6) | 0(0.0)  | 5(0.5) | 931(100.0)   |

위의 〈표 3〉을 통하여 학교의 급과 출신학교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급이 낮을수록 조선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아지고, 학교 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전체적으로 ‘조선족은 조선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강하여 대체로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급 학교가 있는 도시에서는 한어를 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대학

13) 조선족 학교에서는 조선어로 가르치고, 한족 학교에서는 한어로 가르치므로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 제1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

진학을 위해서는 한어 능력이 필요하고, 한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족 학교에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한족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표 4>는 학교 선택이 지역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지역에 따른 조선족들의 거주 유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급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조선족학교를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같은 학교급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표 4> 학교급에 따른 지역별 출신학교 유형

| 구 분  |       | 학교 유형           |              |             |             | 전체               |
|------|-------|-----------------|--------------|-------------|-------------|------------------|
|      |       | 조선족학교           | 한족학교         | 둘 다         | 기타          |                  |
| 소학교  | 지린성   | 560(95.2)       | 24(4.2)      | 2(0.3)      | 2(0.3)      | 588(100.0)       |
|      | 랴오닝성  | 373(94.7)       | 17(4.3)      | 4(1.0)      | 0(0.0)      | 394(100.0)       |
|      | 헤이룽장성 | 691(95.3)       | 24(3.3)      | 8(1.1)      | 2(0.3)      | 725(100.0)       |
| 초중학교 | 지린성   | 538(94.2)       | 33(5.8)      | 0(0.0)      | 0(0.0)      | 571(100.0)       |
|      | 랴오닝성  | 313(92.1)       | 26(7.6)      | 1(0.3)      | 0(0.0)      | 340(100.0)       |
|      | 헤이룽장성 | 703(95.6)       | 31(4.3)      | 0(0.0)      | 1(0.1)      | 735(100.0)       |
| 고중학교 | 지린성   | 329(89.4)       | 38(10.3)     | 0(0.0)      | 1(0.3)      | 368(100.0)       |
|      | 랴오닝성  | 186(89.8)       | 20(9.7)      | 0(0.0)      | 1(0.5)      | 207(100.0)       |
|      | 헤이룽장성 | 322(90.4)       | 31(8.7)      | 0(0.0)      | 3(0.8)      | 356(100.0)       |
| 합 계  |       | 4,015<br>(93.7) | 244<br>(5.7) | 15<br>(0.4) | 10<br>(0.2) | 4,284<br>(100.0) |

<표 4>의 소학교와 초중학교 출신 가운데 조선족학교와 한족학교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 학교 출신 비율이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족학교의 경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비율이 랴오닝성에 비해 높고, 한족학교의 경우는 반대로 랴오닝성에 비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비율이 낮다. 이

14)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조선족들이 적은 랴오닝성에 비해 조선족 학교를 다닌 비율이 높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조선족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한다.

에 비해 고등학교는 헤이룽장성의 조선족학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고 지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소학교나 초중학교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진로나 대학 진학을 고려한 학교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의 경우 라오닝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족들의 거주 유형이 집거형이어서 인근에 있는 소학교나 초중학교에 다니는 반면 라오닝성의 조선족들은 한족들과 혼거 내지 잡거하는 형태여서 그만큼 조선족학교에 덜 다니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에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어를 잘해야 한다고 여겨 한족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선택의 변화는 다음의 <표 5>에서 보듯이 연령층별로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5> 조선족의 학교 급별 세대별 출신학교 빈도(비율 %)

| 구 분 |      | 학교 유형           |              |             |             | 전체               |
|-----|------|-----------------|--------------|-------------|-------------|------------------|
|     |      | 조선족 학교          | 한족 학교        | 둘 다         | 기타          |                  |
| 청년층 | 소학교  | 846(97.5)       | 11(1.3)      | 10(1.1)     | 1(0.1)      | 868(100.0)       |
|     | 초중학교 | 879(98.2)       | 14(1.6)      | 1(0.1)      | 1(0.1)      | 895(100.0)       |
|     | 고등학교 | 327(96.2)       | 12(3.5)      | 0(0.0)      | 1(0.3)      | 340(100.0)       |
| 중년층 | 소학교  | 611(92.7)       | 45(6.8)      | 2(0.3)      | 1(0.2)      | 659(100.0)       |
|     | 초중학교 | 579(88.9)       | 72(11.1)     | 0(0.0)      | 0(0.0)      | 651(100.0)       |
|     | 고등학교 | 481(87.2)       | 67(12.1)     | 0(0.0)      | 4(0.7)      | 552(100.0)       |
| 노년층 | 소학교  | 271(94.8)       | 11(3.8)      | 2(0.7)      | 2(0.7)      | 286(100.0)       |
|     | 초중학교 | 184(93.9)       | 11(5.6)      | 1(0.5)      | 0(0.0)      | 196(100.0)       |
|     | 고등학교 | 100(82.0)       | 21(17.2)     | 1(0.8)      | 0(0.0)      | 122(100.0)       |
| 합 계 |      | 4,278<br>(93.6) | 264<br>(5.8) | 17<br>(0.4) | 10<br>(0.2) | 4,569<br>(100.0) |

위의 <표 5>는 모든 연령층에서 학교의 급이 높아질수록 조선족 학교에 다닌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한족 학교에 다닌 비율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이나 노년층 모두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족학교에 다닌 비율도 높아지고 중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학력이 높을

수록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들의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비율을 표로 보이면 <표 6>과 같다.

<표 6> 세대별 모국어 인식 빈도(비율 %)

| 구 분 | 모국어 인식         |               |              |             |             | 전체              |
|-----|----------------|---------------|--------------|-------------|-------------|-----------------|
|     | 조선말            | 한족말           | 한국말          | 북한말         | 기타          |                 |
| 청년층 | 637(63.8)      | 273(27.4)     | 69(6.9)      | 9(0.9)      | 10(1.0)     | 998(100.0)      |
| 중년층 | 625(82.9)      | 72(9.5)       | 24(3.2)      | 20(2.7)     | 13(1.7)     | 754(100.0)      |
| 노년층 | 285(78.5)      | 23(6.3)       | 27(7.4)      | 27(7.4)     | 1(0.3)      | 363(100.0)      |
| 전 체 | 1547<br>(73.1) | 368<br>(17.4) | 120<br>(5.7) | 56<br>(2.6) | 24<br>(1.1) | 2115<br>(100.0) |

위의 <표 6>은 언어 정체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층 세대와 노년층 세대 모두에서 모국어를 조선말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청년층에서는 한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이 한어에 더 많이 접촉하고 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한국(남한)에서 이주한 세대나 그 다음세대가 자기의 모어를 한국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는 북한말을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년층은 6.3%가 한어를 모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층은 4분의 1일 넘는 27.4%가 한어를 모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젊은층으로 갈수록 조선족으로서의 언어 정체성이 약해지는 반면에 한화 정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의 <표 7>에 보듯이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7〉 지역별 모어에 인식 빈도(비율 %)

| 구분    | 모어 인식(비율)      |               |              |             |             | 전체              |
|-------|----------------|---------------|--------------|-------------|-------------|-----------------|
|       | 조선말            | 한족말           | 한국말          | 북한말         | 기타          |                 |
| 지린성   | 610(84.1)      | 54(7.4)       | 30(4.1)      | 27(3.7)     | 4(0.6)      | 725(100.0)      |
| 랴오닝성  | 245(59.3)      | 112(27.1)     | 35(8.5)      | 13(2.9)     | 8(1.9)      | 413(100.0)      |
| 헤이룽장성 | 523(67.0)      | 185(23.7)     | 52(6.7)      | 12(1.5)     | 9(1.2)      | 781(100.0)      |
| 전체    | 1378<br>(71.8) | 351<br>(18.3) | 117<br>(6.1) | 52<br>(2.7) | 21<br>(1.1) | 1919<br>(100.0) |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조선말을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지린성과 나머지 두 지역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의 경우는 한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지역 간의 이러한 차이는 조선족의 거주지 구성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린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여 한어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나머지 두 지역은 조선족 거주자 비율이 적어 일상생활에서도 한어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한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6〉과 비교할 때 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한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청년층에서는 언어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선말 사용의 유창성과 한어 사용의 유창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말과 한어 구사의 유창성 정도를 5점 척도로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선말과 한국말 그리고 한어 가운데 제일 잘해야 한다고 여기는 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선말과 한어의 구사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표 8〉에서 보듯이 세 지역 모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8〉 조선말과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

| 언어 능력               |       | 인원   | 평균   | 표준편차 |
|---------------------|-------|------|------|------|
| 조선족은 조선말을<br>잘해야 한다 | 지린성   | 726  | 4.52 | .866 |
|                     | 랴오닝성  | 416  | 4.39 | .950 |
|                     | 헤이룽장성 | 791  | 4.38 | .961 |
|                     | 전 체   | 1933 | 4.44 | .926 |
| 조선족도 한족말을<br>잘해야 한다 | 지린성   | 726  | 4.64 | .779 |
|                     | 랴오닝성  | 416  | 4.57 | .801 |
|                     | 헤이룽장성 | 791  | 4.65 | .696 |
|                     | 전 체   | 1933 | 4.63 | .752 |

위의 〈표 8〉에서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이 조선말 사용 능력의 필요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말은 이미 잘 구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어 구사 능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지 조선말보다 한어를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9〉에서 보듯이 의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는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조선말과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년층은 한어 구사 능력보다 조선말 구사 능력의 필요성을 더 중시하지만 청년층에서는 반대로 조선말 구사 능력보다 한어 구사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조선말과 한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청년층 스스로가 이미 조선말과 한어를 둘 다 잘 구사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어 구사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 세대 별 조선말과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

| 구 분            |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  | 전체   |
|----------------|------|------|------|------|
| 조선말 구사 능력의 필요성 | 4.23 | 4.50 | 4.82 | 4.47 |
|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  | 4.50 | 4.78 | 4.77 | 4.65 |

〈표 10〉은 중국 조선족들이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연령층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0〉 조선족들이 잘 해야 할 언어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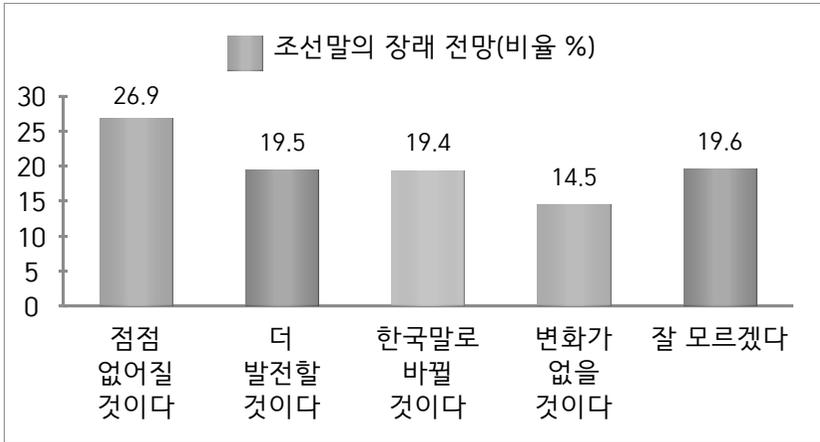
| 구 분 | 조선말  | 한족말  | 한국말  | 전체    |
|-----|------|------|------|-------|
| 청년층 | 41.3 | 37.4 | 21.3 | 100.0 |
| 중년층 | 45.8 | 34.3 | 19.4 | 100.0 |
| 노년층 | 64.9 | 28.9 | 6.2  | 100.0 |
| 전 체 | 47.0 | 34.8 | 18.2 | 100.0 |

위의 〈표 10〉을 〈표 9〉와 비교해 보면 조선족들은 조선말과 한어를 둘 다 잘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는 조선말과 한어 그리고 한국말 순으로 잘해야 한다는 언어 태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조선족이 잘해야 하는 언어의 순위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47.0%이고 한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4.8%라는 것은 적어도 34.0%의 조선족은 중국에서 한어를 조선말보다 잘해야 한다는 언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층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조선족들이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가 조선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노년층 64.9%, 중년층 45.8%, 청년층 41.3%로 나타나 젊은층으로 갈수록 낮아진 반면 한어를 잘해야 한다는 비율은 노년층 28.9%, 중년층 34.3%, 청년층 37.4%로 나타나 젊은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조선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청년층으로 갈수록 한어와 한국말을 잘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한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언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 세대로 갈수록 언어 선택과 언어 전환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조선족들이 보는 조선말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조선족 자녀들의 학교 선택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말의 장래와 앞으로 손자나 손

녀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말 그리고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하는 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중국에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다섯 개의 응답지 “①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②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③점점 한국어말로 바뀔 것이다 ④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⑤잘 모르겠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전망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26.9%)이 가장 많았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이런 응답이 많은데 이는 노년층들은 조선말 구사가 유창한데 비해 청년층이나 소년층으로 갈수록 한어로의 언어 선택이나 언어 전환이 일어나 조선말을 못 쓰거나 덜 쓰는 것을 일상생활이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이다.<sup>15)</sup>

15) 조선말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진 조선족 노년층 제보자들의 상당수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없어질 조선말을 왜 조사하느냐’고 반문하거나 좀 더 심하게는 ‘조선말은 다 망태기가 됐어(조선말은 다 망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조선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말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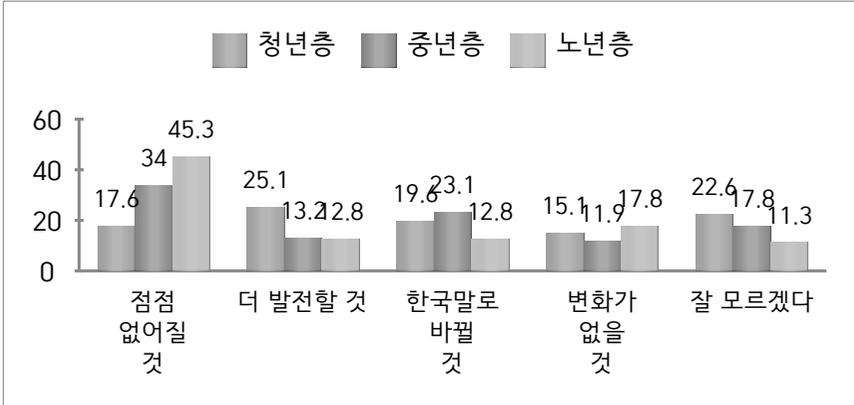
반면에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거나 ‘변화가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0%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점점 한국말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19.4%)도 넓게 보아 조선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조선말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응답이 53.4%가 된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말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젊은층의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조선말 대신 한어를 선택함으로써 한어로의 언어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5차와 6차 자료조사 과정에서 만난 젊은층, 특히 라오닝성과 헤이룽장성의 중년층 이하의 제보자들은 조선말 보다는 한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년층 제보자들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한어로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2년 제2차 조사 때에는 헤이룽장성의 상지시 조선족 중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대부분이 교사(校舍)에서 조선말로 대화했었는데 3년 뒤인 2015년의 제6차 조사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어로 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지린성 창춘의 조선족 중학교에서도 관찰되었는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조선어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 선생님이 한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조선족 학교에서 과목에 따라 조선족 선생님이 없어 한족이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족 선생님들도 한족 선생님과 소통은 한어로 하였다. 반면 지린성의 옌지에서는 소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조선말로 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족학교의 선생님들도 조선족이 대부분인데 점차 한족이 늘어나는 추세다.<sup>17)</sup>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조선족의 거주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층 세대로 오면 이미 조선말이 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8)</sup>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듯이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 
- 16) 현지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했는데 대다수의 노년층들이 젊은 사람들의 한어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각주 13 참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7) 옌벤 대학교 김순희 교수와 옌지시의 연신소학교 부교장 선생님도 한족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 1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후속 논의에서 제시될 것이다.



[그림 2]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세대별 인식(%)

위의 [그림 2]는 연령층에 따라 조선말의 장래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년층에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거의 절반인 45.3%가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질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중년층에서는 34%가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반해 청년층은 중년층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7.6%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중년층과 노년층의 우려가 청년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 간의 조선말 구사능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나 중년층이 조선말을 훨씬 잘 구사하는데다가 조선말의 보전과 사용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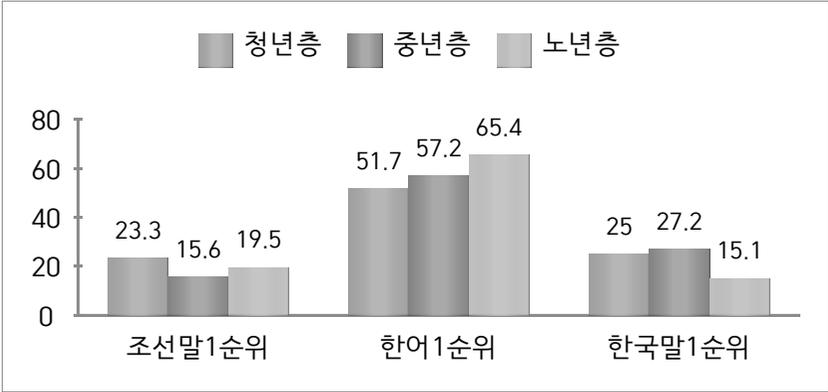
노년층의 대부분인 93.3%가 조선말(한국말 북한말 포함)을 모어로 사용하는데 반해 6.3%만이 한어를 모어로 사용함으로써 조선말을 유창하게 잘 구사한다. 반면에 청년층은 71.6%가 조선말을 모어로 사용하고 27.4%가 한어를 모어로 사용함으로써 젊은층으로 갈수록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년층은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말이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반면에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조선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표 6> 참조).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조선어(한국말 북한말 포함)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노년층 93.3%, 중년층 86.8%, 청년층 71.6%인 반면 한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은 노년층 6.3%, 중년층 9.5%, 청년층 27.4%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조선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한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연령층 간에 상반된 차이를 보인다. 즉 노년층은 12.8%(중년층은 13.2%)가 조선말이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해 청년층은 25.1%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년층의 우려와는 달리 조선말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년층에서는 12.8%만이 한국말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비해 중년층과 청년층에서는 각각 23.1%와 19.6%가 한국말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연령층 간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의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많이 접촉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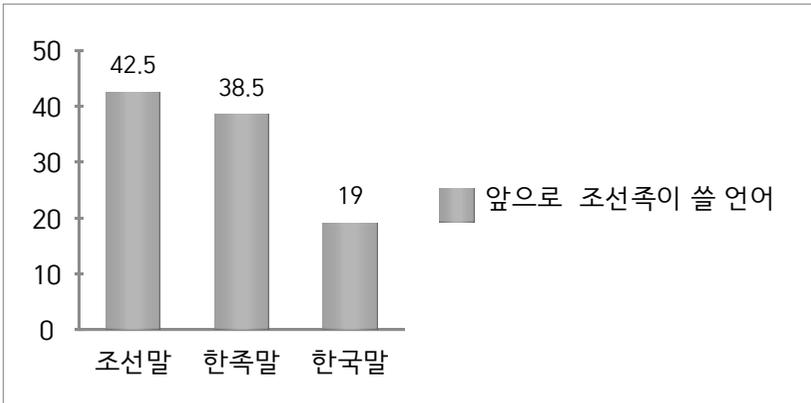
조선말의 장래는 결국 조선족의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과 앞으로 중국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말과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들은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듯이 후손들은 절반 이상(55.9%)이 한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조선어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20%(한국어를 포함해도 44.1%)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아도 모든 연령층에서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말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보다 한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 2017년 1월 31일 현재 약 63만여 명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온 중장년층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각주 7 참조).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조선족들에게 전파시키는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인적 문화적 접촉으로 한국어의 영향은 받았지만 중국에 남아 있는 이들의 자녀는 오히려 우리말을 사용할 대상의 부재로 조선말에 노출되는 정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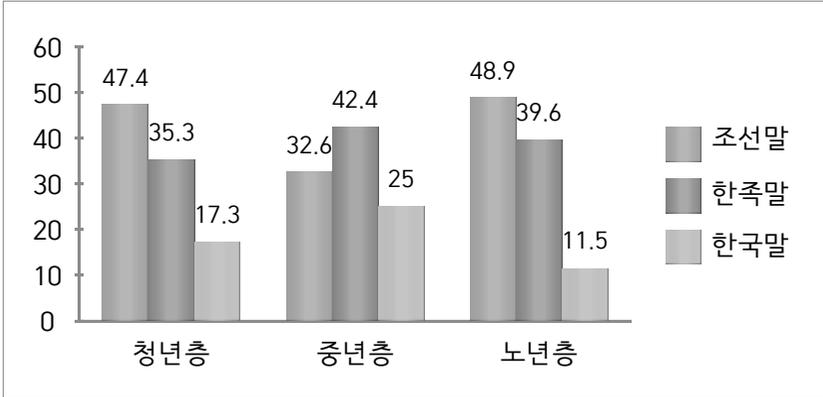


[그림 3]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여기는 말의 1순위

조선말의 장래에 대해 노년층(45.3%)이 청년층(17.6%)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그림 2]와 평행하게, [그림 3]은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언어가 한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청년층(51.7%)보다 중년층(57.2%)과 노년층(65.4%)으로 갈수록 높아진 반면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청년층(23.3%)이 중년층(15.6%)과 노년층(19.5%)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중국 조선족의 후손들은 조선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 한어의 사용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여기는 우선순위의 말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앞으로 사용



[그림 4] 앞으로 조선족이 사용할 언어



[그림 5]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될 언어\_연령층별

하게 될 것으로 여기는 언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듯이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의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앞으로도 중국 동포들의 61.5%가 조선말을 사용할 것(한국말 19% 포함)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말 사용에 대한 태도가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약 38.5%는 앞으로 조선족들이 사용할 언어는 한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연령층별로 비교해 보면 의미 있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그림 5]에서 보듯이 청년층과 노년층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중년층은 약간 다르다. 노년층의 65.4%가 앞으로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1순위 언어는 한어일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조선족 동포들의 절반 정도인 48.9%는 조선말을 사용하고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어 사용까지 포함하면 60.4%가 우리말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 간에 조선말과 조선말 사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년층은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중년층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하는 말이 한어라고 여기기 때문에 42.4%

가 한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청년층에서는 47.4%가 앞으로도 조선말을 유지하고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어 사용까지 포함하면 64.7%가 우리말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은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족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를 조선말(47.4%), 한어(35.3%), 한국말(17.3%)의 순으로 보고 있지만 그 근거는 노년층이나 중년층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노년층은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조선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반영되었지만 청년층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조선말이고 이것이 계속 쓰일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을 나타낸 것이라고 여겨진다. 중년층은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살아가려면 한어를 잘 해야 한다고 여겨 조선족들이 앞으로 한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후손들이 쓸 언어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앞으로 쓰이게 될 언어가 같다고 보면 위의 [그림 5]는 앞의 [그림 3]과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족들이 ‘조선족의 후손들’과 ‘앞으로 다가올 중국 조선족 사회의 구성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림 3]에서 말하는 조선족의 후손들은 먼 훗날의 조선족을 뜻하고, [그림 5]에서 말하는 앞으로 다가올 중국 조선족 사회는 현재와 이어지는 가까운 미래 사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그림 5]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노년층 세대일수록 가까운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어가 더 우세하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할 언어로는 중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52.1%)로 한어를 제1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층 세대가 한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5]를 통해서 조선말의 미래에 대한 노년층과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보다 훨씬 많은 노년층이 조선말은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그림 2]) 그 자리를 한어가 차지할 것(그림 3)으로 보는 반면, 청년층은 노년층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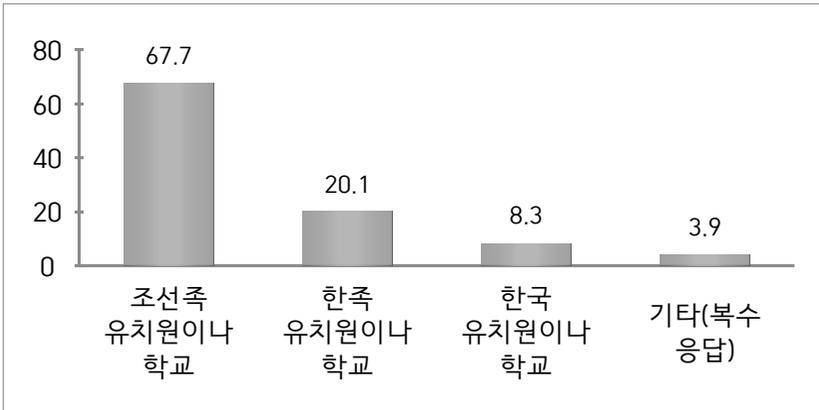
높은 비율로 조선말이 제1언어로 유지될 것([그림 5])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 3]과 [그림 5]에서 보듯이 후손들이 조선말을 1순위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청년층이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높고 한어를 1순위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청년층에 비해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높다. 또한 후손들이 사용할 말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23.3%, 15.6%, 19.5%)보다 한어를 1순위로 꼽은 비율(51.7%, 57.2%, 65.4%)이 각 세대 별로 두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림 5]에서 보듯이 앞으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1순위 언어에 대하여는 연령층별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청년층과 노년층은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말로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47.4%, 48.9%)이 한어를 1순위로 꼽은 비율(35.3%, 39.6%)보다 높는데 반해 중년층에서는 반대로 한어를 1순위로 꼽은 비율(42.4%)이 조선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32.6%)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말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이 미래 조선족 사회의 조선말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실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층 세대가 볼 때는 청년층의 조선말 구사 능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한어 구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자기의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조선말 사용 능력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청년층은 스스로의 말을 비교하여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자기들이 조선말을 잘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은 조선족 사회에서 앞으로 조선말 사용이 줄어들고 한어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청년층은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말이 여전히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체로 사회경험이 적은 젊은층 세대가 한어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림 5]와 중년층 제보자들이 보인 한어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조선말 능력이 우수한 중년층 화자들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한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한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림 5]에서와 같이 중년층 화자들이 앞으로 조선족

사회에서 쓰게 될 1순위의 언어를 한어로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년층 화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한어 구사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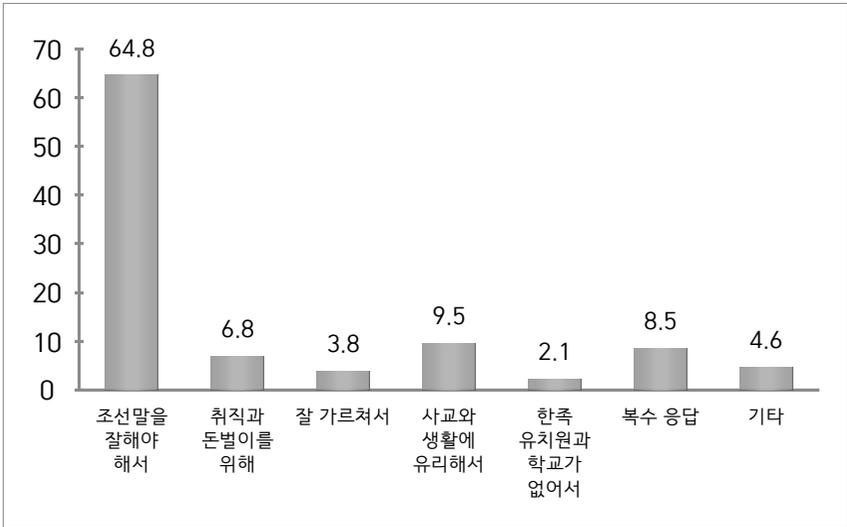
중국 조선족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녔느냐에 따라 조선말을 더 유창하게 잘할 수도 있고 한어를 더 유창하게 잘할 수도 있다. 즉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언어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미래의 언어사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언어사용은 중국 조선족들의 자녀(또는 손자나 손녀)를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그림 6]에서 보듯이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67.7%로 나타났고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과 한국 유치원이나 한국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은 각각 20.1%와 8.3%로 나타났다.



[그림 6] 자녀가 다닐 학교의 선택 비율

[그림 6]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도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 학교나 한족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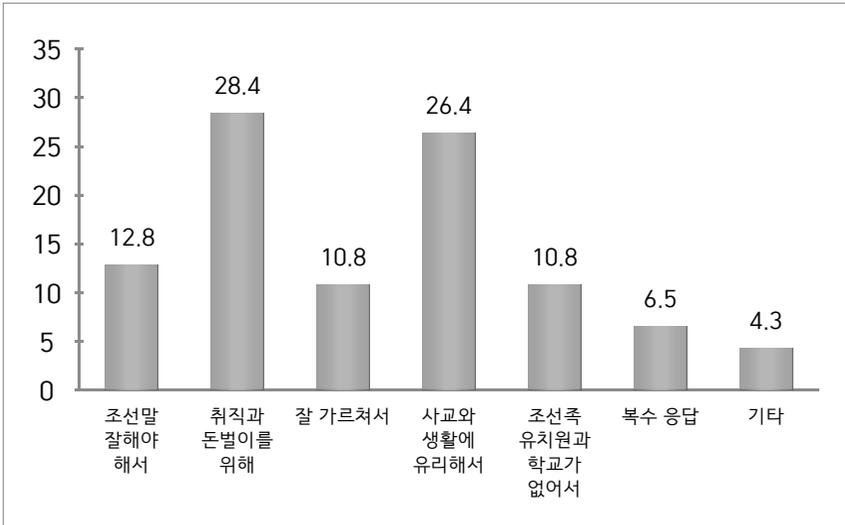


[그림 7] 자녀를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그림 7]에서 보듯이 조선족 유치원이나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은 조선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6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취직과 돈벌이 때문이라든가 사람을 사귀거나 사회생활에서의 필요성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조선족이니까 조선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조선말을 잘 배우는 것이 기본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런 태도는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이 언어 정체성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녀들을 한족유치원이나 한족학교에 보낸다면 그 이유는 [그림 8]과 같다.

20) [그림 7]에서 복수 응답은 ‘취직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는데 유리해서, 조선족학교에서 더 잘 가르쳐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를 선택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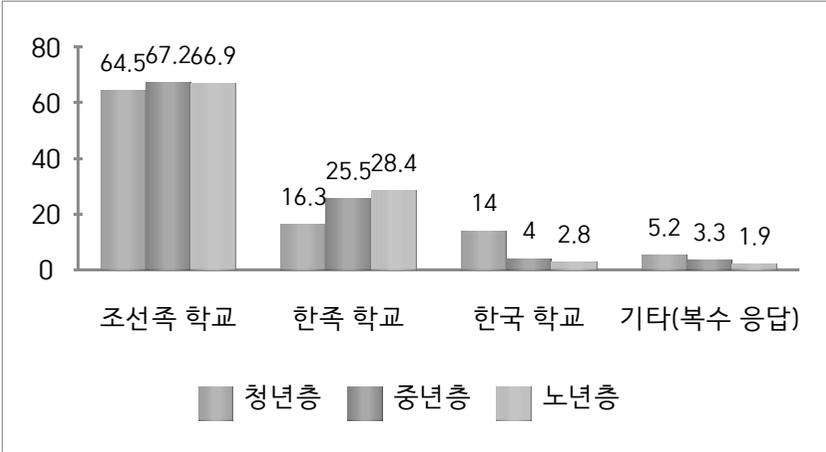


[그림 8] 자녀를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 학교에 보내는 이유

위의 [그림 8]에서 보듯이 조선족이 자녀나 손자녀를 한족 유치원이나 한족학교에 보낸다면 막대한 민족 정체성보다는 ‘취직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또는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는데 유리하다’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외에 중국 사회의 변화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조선족 집거지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족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sup>21)</sup>

자녀의 학교 선택을 연령층별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21)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거나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농촌의 조선족 학교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가령 심양의 만용촌 조선족소학교의 경우 한때는 1,000여 명이던 학생이 지금은 12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2015년, 만용촌 조선족소학교 교장선생님). 조선족소학교뿐만 아니라 조선족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는 대부분 도시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모여들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족학교에 보내는 조선족들이 많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015년, 장춘 조선족중학교 윤태숙 교장선생님).



[그림 9] 세대별 자녀의 학교 선택 비율

[그림 9]에서 보듯이 중년층이나 노년층으로 갈수록 청년층에 비해 조선족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반면에 한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비율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청년층에서 조선족 학교나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낮은 반면 한국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은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류의 영향으로 청년층으로 갈수록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족 학교에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은 세대는 노년층과 중년층이다. 노년층과 중년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한어 구사 능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자녀가 한어를 잘 해서 취업이나 교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족 학교에 보내려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조선말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조선족 학교를 선택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강

22) 연령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어를 주로 사용하거나 한족학교에 다니거나 다닌 조선족이 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족 학교 출신이나 한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조할수록 한족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가 한국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느냐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교 선택을 달리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과 직결되어 결국은 언어 선택과 언어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3. 결론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의 변화로 인한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전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언어 태도 및 언어 정체성을 조사 분석하였고 동시에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하여 언어 사용과 언어 전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족 사회가 이주 1, 2세대와 달리 이주 3세대나 이주 4세대 이하로 갈수록 중국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가 심하고 코드 바꾸기의 정도도 이주 1, 2세대보다 이들에게서 훨씬 뚜렷하게 보인다. 이주 3, 4 세대의 코드 바꾸기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학교다.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조선족 학생들이 조선말로 소통하는지 한어로 소통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코드 바꾸기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조선족들끼리 집거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과 거주지의 재편으로 한족들과의 교류가 많아졌다. 또한 중국에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취직하여 중국인으로 살아가려면 한어를 잘해야 한다고 태도 때문에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낸다는 점도 조선족들의 언어사용과 언어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조선족들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언어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 사람은 반드시 조선학교에 다녀야 하고 반드시 조선말을 배우고 써야 한다는 이민 1, 2세대의 민족의식과 민족 정체성이 이민 3, 4세대

로 내려가면서 점차 희미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도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노년층의 민족의식이 3, 4세대에서는 조선족도 이제는 중국에서 중국인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희미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조선족 사회의 구체적인 이중언어 사용과 코드 바꾸기 양상 및 세대 간의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자료 수집과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선족들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 참고문헌

- 강현석 외(2015),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권태환 편저(2008),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태환·박광성(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 27(2), 61~89, 한국언어학회.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113~146, 한국사회언어학회.  
박경래(2002b),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59~86, 한국사회언어학회.  
박경래(2005), 〈충북 출신 연변 조선족 언어 집단의 경어법 혼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13(1), 53~81, 한국사회언어학회.  
박경래·곽충구·한성우(2012), 《중국 조선족의 언어 사용 실태》, 국립국어원.  
박광성(2012), 〈2010년 중국 인구 센서서: 조선족 인구 통계 분석〉, [www.zoglo/blog/pi-aoguangxing](http://www.zoglo/blog/pi-aoguangxing)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월보(2017),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BoardList.do?strNbodCd=noti0097&strOrgGbnCd=104000&strFilePat)

- h=imm/&strRtnURL=IMM\_6070&strNbodCdGbn=&strType=&strAllOrgYn=N
- 양홍(2016),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와 전망>, 《청람어문》 58, 61~87, 청람어문교육학회.
- 오성애(2010),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 《한국학연구》 23, 181~21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성애(2011),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 왕한석(1996), <언어생활>,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150~189, 국립민속박물관.
- 왕한석(1997), <언어생활>, 《중국 요녕성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186~211, 국립민속박물관.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 연구>, 《재외한인연구》 12(1), 5~64, 재외한인학회.
- 윤인진(2003), <조선족의 도시 이주, 사회 적응, 도시 공동체: 청도 사례 연구>, 《재외한인연구》 13(2), 49~89, 재외한인학회.
- 윤인진(2004), <중국 조선족의 인구 이동과 도시 공동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장송·신경식(2004), <중국 조선족의 Code-switching에 관한 연구: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성고자진의 조선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2(1), 207~230,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필소조(1984),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요녕민족출판사.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성우(2010), <중국 청도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정체성>, 《방언학》 14, 113~136, 한국방언학회.
- 한성우(2014),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전환>, 《한국학연구》 32, 411~4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경래**

krpark123@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17년 11월 22일

논문 심사일: 2017년 11월 27일~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2월 14일